

2013년 2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논문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한
음악치료 교육 방안
-영광 S중학교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문 새 림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한 음악치료 교육 방안

Music therapy remedy for alternative school students

2013 년 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문 새 림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한 음악치료 교육 방안

지도교수 박 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2 년 10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문 새 림

문새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한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지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계 인

2012 년 1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2
II 이론적 배경	2
1. 대안교육의 이론적 고찰.....	2
a. 대안교육의 의미.....	2
b. 대안교육의 목적.....	6
c. 대안교육의 특징.....	7
2. 음악치료 교육의 이론적 고찰.....	10
a. 음악치료의 정의.....	10
b. 청소년 음악치료 교육의 목적 및 기법.....	13
c. 음악치료 사례.....	21
III 음악치료교육의 적용(노래 심리치료).....	22
1. 함께 노래 부르기 - 기존 노래의 활용.....	26
2. 나만의 노래 만들기(Song creation).....	27
IV 결론.....	40
참고문헌.....	42

표 목 차

<표1> 전통교육, 근대적 교육과 대안교육의 특징비교.....	9
<표 2> 안정적인 음악의 요소적 특성.....	20
<표 3> 노래 심리치료의 활용 방안.....	24
<표 4> 노래 심리치료적 기능.....	24

그림 목 차

<그림1> 음악과 치료에 관련된 학문.....	11
<그림2> 청소년 음악치료의 목적.....	15
<그림3> 청소년 음악치료 방법의 범위.....	16

악 보 목 차

<악보1> 살다보면 - 권진원.....	31
<악보2-①> 거위의 꿈- 카니탈.....	35
<악보2-②> 거위의 꿈 - 카니탈.....	36

ABSTRACT

Music therapy remedy for alternative school students

Sae-rom Moon

Advisor: Prof. Kay Pahk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recent years, as youth issues that include suicidal events, school violence, school bullying have been emerged as a social problem, the importance of characteristic education is reiterated. When the problems became increasingly serious, the needs arise for the characteristic education and various forms of alternative educational effort were attempted. There is well-rounded education based on the personality in the pursuit of the alternative school: for example, the study of 'mind' represents in the Won-buddhism, which is the doctrine of the content that is the study of the mind by looking back and discovering for yourself what is the cause of all the problems. Therefore it is being implemented reflecting the characterization of the alternative school education and curriculum, without religion or ideology of limited adoption.

Mind study has been used as a tool to heal the psychological problems of the students. And also music therapy could be used as the tool by giving the musical talent to the students. Therefore, it is effective for the alternative education. The music therapy program was conducted in Sung-ji Song-Hak middle school for two months: the emotional and behavior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were examined through a module to fit each type of abnormal group of students. However, the types of students who are experiencing psychological problems were too diverse and the time had not been allowed enough.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is study was in the musical activities of the time of self-reflection and peer relationships to promote and share the joy of the music itself. Information through questionnaires showed that the students could obtain the high self-esteem when using the music therapy.

This study also supports the apparent effect visible to the students in constructing their dream and the future plan. The music therapy promotes peer relationships by sharing their opinions with their colleagues. Therefore, the music therapy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thods of the alternative educatio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왕따 문제, 자살사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거듭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대안교육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대안 교육적 노력이 시도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는 설립취지와 교육이념, 교육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여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교를 지향한다.

1990년 중반부터 보편화하기 시작한 대안교육은 이념과 성격의 다양성만큼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다양성과 학교 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안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은 인성교육이 중심이 되는 전인적 교육으로 대안교육의 한 예로 원불교의 ‘마음공부’를 들 수 있다. 마음공부는 “심지(心地)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지금! 여기서!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自性)의 정을 세우자”는 말로 요약되는 원불교의 교리 내용이다.¹⁾ 마음공부는 결국 ‘나(마음)를 되돌아보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종교나 이념의 국한 없이 대안학교의 특성화 교육에 잘 어울리어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다. 마음공부가 학생들의 심리문제를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듯이, 음악치료는 학생들의 음악적 끼와 재능을 맘껏 발산하게 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음악치료를 통해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실기 위주의 수업과 다양한 연주활동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

1) 영산성지고등학교-마음공부를 채택하여 학생들에게 날마다 마음 일기를 쓰도록 지도하고 있다.
마음공부: 학교 건학 이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생들이 정신의 힘을 기르는 방안의 하나로 일기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 생활을 나열하는 일기 쓰기를 넘어서 마음의 상태, 마음이 변하는 모습, 마음을 쓰는 내용을 일기로 기재하고 지도교사가 감정하여 용심법(用心法-마음을 사용하는 법)으로 원래 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는 훌륭한 자질을 찾아내어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

따라서 음악치료 수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생들의 심리문제를 치유하는 대안교육의 한 방안으로 실효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는 대안교육으로서의 음악치료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노래 패러디 수업을 진행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의 여러 가지 문헌과 전문서적을 고찰하고 인터넷을 활용한다.

둘째, 대안학교(성지송학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치료 수업 시연 후 설문조사를 한다.

셋째, 질적 평가로 수시로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다양하고 광범위한 대안학교의 유형을 모두 논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설문조사 대상을 영광군에 소재한 영산성지송학교로 연구 중심을 한정하였다.

둘째, 이 연구 결과로 대안교육의 한 방안으로서의 음악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학생들의 심리문제, 프로그램의 인지능력, 성향 등이 다양하므로 모듈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대안교육의 이론적 고찰

a. 대안교육의 의미

대안교육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의 산물이다. 대안교육은 교육 체제의 획일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 교육 수요자의 교육권을 폭넓게

확대하는 대안적 방식으로 접근한다. 대안교육은 기계론적 인간관과 생산성 극대화를 지상의 과제로 삼고 있는 근대문명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토대로 인간 중심의 교육을 현실에서 구현한다. 억압적인 관료적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이고 유연한 학교를 건설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전환기 교육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교육을 제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대안교육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공교육 대체 모델로 대안교육이 부상하는 것은 대안교육의 철학과 운영방식이 전환기 교육 패러다임의 지향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의 학교 문화는 지식과 정보의 전수에만 집중하는 교사 중심의 수업, 과도한 경쟁을 통해서 학습효과를 높이려는 경쟁적인 수업 분위기, 교과목 위주의 수업 운영, 입시 위주의 학습방법 등으로 일관해 왔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말살되고, 타인이 대상화되며, 개인이 원자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수 만 명 이상의 학업 중단 자를 양산했다.

대안학교란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고안된 특별학교를 말한다. 그 대표적인 대안학교는 1921년 영국의 교육자이자 작가인 니일 (A. S. Neill)이 설립한 썬머힐학교(Summerhill School)²⁾이며 그곳에서는 자연 친화적이며 공동체적인 삶을 이어간다는 교육목표 아래 비정형적인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방식을 추구한다. 이 학교의 주요특징은 학급 수나 학생 수를 줄여 학습자와 교사 간의 인간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습자와 교사가 동등한 자격에서 학습 계획에 참여하며 경쟁주의 원리를 지양한다는 것이다(이병환·김영순,2008).

오늘날 대안학교의 유형에는 학교 중도탈락자나 부적응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위탁형 대안학교와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이 자유롭고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정규학력을 인정받는 특성화형 대안학교 그 밖에 특정시기에 운영하는 계절학교나 주말 학교 등이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특성화형 대안학교는 많지 않은 편이다.

2) 썬머힐학교-영국의 교육자 니일(A.S. Neill)이 1921년에 설립한 학교.

런던에서 약 100km 떨어진 서퍽의 레스턴에 세운 비형식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립학교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이 있다. 또 니일이 자기 자신이 설립한 학교의 목표·특징·교육방법·문제점·학부모와의 관계 등에 관해서 1960년에 출판한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유럽과 미국에 비형식학교(informal school), 자유학교(free school), 팀티칭(team teaching), 개방교실(open classroom)이 나타나게 하는 등 전 세계 초등교육의 혁신에 영향을 끼쳤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전국에 걸쳐 중학교 9개 9교, 고등학교 21개 2교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 대안교육이라는 말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이 용어는 자생적이라기보다 영어의 'Alternative Education'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 문헌상으로는 광병선이 쓴 1995년 '교육개발' 3월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대안적 학교 교육"이라는 말을 쓴 것이 최초의 용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기존의 학교 교육이 지닌 한계에 대한 논의와 이를 벗어나려는 다양한 실천들은 모색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안교육"이라는 말이 통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안교육의 영어식 표현이 'Alternative Education'으로 쓰인다는 사실은 영미 국가에서 대안교육이 주로 학교 교육의 변형된 형태라는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그것은 '교육체제 안에서 선택 가능한 것들'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60년 1대 중반에서 1970년 1대에 걸쳐 기존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좀 더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학교들이 등장하였고 이를 가리켜 '자유학교' 또는 '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우리나라는 1990년 1대 이전에도 이미 기존의 학교 교육이 지닌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벗어나려는 다양한 실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안교육'이라는 말이 통용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대안학교로 불렸던 학교들은 다소 급진적인 성격을 띤 '탈 학교적'인 형태에서 전통적인 형태와 유사한 학교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과 형식이 매우 다양하였다. 이는 대안교육이라는 말의 의미가 근원적으로 애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모호성은 '대안'이라는 말 자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즉 '대안'이란 말은 무엇인가를 대체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과연 기존의 교육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교육이 그곳에서 가능한지 설사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도 일단 그러한 교육이 보편화 된 후에도 여전히 대안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의문으로 제기될 수 있다(한창진,1998).

이렇듯 대안학교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것은 실제 교육 현장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일컫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대안교육 운동의 모습과 방법은 지역, 나라, 실천현장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안교육은 '열림(open)', '비형식성(informal)'의 의미를 포함한 제도교육 틀 안에서의 대안교육에서부터 제도교육에 대한 근본적 회의로

교육관, 인간관, 자연관, 사회관, 세계관 등에서 전혀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는 대안교육까지 그 내용과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학교를 부과된 의무가 아닌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여겨 대안교육을 정의하고 이에 반해 후자는 내용과 형식을 뛰어넘어 기존의 제도 교육을 대안교육이라고 지칭한다.

또 다른 시각에서의 대안교육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기존의 교육을 불만족스러워 하여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늘 있기 마련이며 대안교육이란 바로 이것을 말한다고 보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대안교육은 특별한 의미를 있지 않으며 단지 새로운 시도 자체를 지칭할 뿐이다.

다른 하나는 대안교육을 특정한 시대나 사회에 고유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교육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는 20세기 말의 상황에서 근대 공교육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주목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두한 일련의 교육적인 노력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독특한 문제의식과 가치지향이 내포되어 있는데, 1990년 1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안교육은 후자의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다(이종태,200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안교육은 기존의 학교 교육과는 형태와 내용 면에서 다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제도나 교사보다는 학습자 개개인의 요구와 특성이 중시되는 교육이라는 점과 근대문명이 소홀히 했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협동과 조화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결국, 대안교육은 공통으로 기존교육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새로운 교육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³⁾

3) 교육부, 교육 50년사 서울.

b. 대안교육의 목적

학교의 위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문화, 즉 교육과 삶 사이의 균열 극복, 행위 능력이 있는 성품을 가진 인간으로의 도야, 개별화, 공동체 정신 함양, 전인교육, 아동의 관심, 자발성, 자기 규정성 존중, 통합과목의 실시, 자연으로의 접근, 이에 상응한 교사 역할의 변화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포괄적으로 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이에 따라 대안학교는 아동관, 지향가치, 학습 내용과 방법, 기반 철학, 활동내용, 규모 등에서 기존의 학교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교육문화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물론 대안학교는 나라마다 제각기 특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향하고자 하는 근본정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교육 이념에서의 공통 요소는 근본적으로 아동 중심적 교육관을 견지하고 있다. 교육내용의 특징은 영국 하트랜드(Hartland)의 '작은 학교'에서 예시되는 것처럼 노작 중심의 생활교육이나 발도르프 학교에서처럼 예능교육 및 체험교육을 강조하는 등 다소간에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과 유리된 박제된 지식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스스로 인식을 통해 구성해 낸 지식을 실제 체험을 통하여 내면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럼으로써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전인적 인간성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교육 환경적 측면에서는 자연과 함께 쉽게 동화될 수 있는 학교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교규모 면에서 학생 개개인의 개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작은 학교'를 지향하고 있다.

'대안'이라 함은 기존의 법과 제도, 질서를 모두 무시하는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제도와 법, 질서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제도와 법과 질서를 찾는 것을 말한다. 대안교육은 성적 지상주의에 바탕을 둔 경쟁적이고 비인간적인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탈피하여 개인적인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존중되는 '공동체적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실천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안교육은 개인의 잠재력과 능력을 계발하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 이외에 이웃, 지역사회, 자연과의 상호작용과 협동을 중시하는 공동체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병환·김영순,2008).

c. 대안교육의 특징

대안교육은 기존의 학교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는 대안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육, 새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대안교육은 그 구체적인 실천 양태의 다양성에도 지향하는 이념에서 이러한 특징을 볼 수 있다(이종태·이명준,1996).

첫째, 대안교육의 특징은 아동관에서 나타나는데, 아동을 주체적이며, 자율적인 존재, 스스로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 교사나 부모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본다. 따라서 아동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배워야 할지에 대한 사항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듯 아동기부터 민주적인 방법을 체험하고, 교육받는 것은 장차 이 사회를 좀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는 것이다.

둘째, 아동 개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가치 또한 중요시하는데 이처럼 대안교육은 인간 상호 간의 협력과 존중, 모두가 평등함을 강조한다. 대안학교들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상호 간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양보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체험을 하도록 한다.

셋째, 아동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학습 내용과 방법의 변화를 수반 한다. 즉, 전통적인 교육과는 달리 대안교육은 주어진 교육내용이나 그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있다고 보지 않고, 설사 그러하다 하여도 그것이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나 주도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고 본다. 아동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가를 아동 스스로 맡기는 것이 진정한 학습의 의미라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만 비로소 아동에게 살아 있는 체험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대안교육은 생명존중 사상 또는 생태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인간과 자연의 적대적 또는 ‘나-그것’의 관계를 공 발자취인 관계로 회복하며 돌이킬 수 없는 파괴가 아니라 지속해서 가꾸고 활용할 것을 교육한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위기 극복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생명에 대한 가치 존중을 바탕으로 하므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은 물론 인간과 인

간 사이의 평화적인 관계를 같은 가치의 범주로 본다. 생태주의가 반문명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자연 파괴적인 기계의 편리함보다는 인간의 노동과 불편함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태도를 중시한다.

다섯째, 대안교육은 노작 활동⁴⁾을 중시한다. 일과 놀이와 공부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많은 대안학교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물건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식자재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모든 과정은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놀이이기도 하고 사회성을 기르는데 좋은 체험이기도 하다.

여섯째, 대안교육은 공통으로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 이것은 영국의 5) '인간규모(human scale) 교육'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위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소규모 학교는 작은 집단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이념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대개의 대안학교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는 교육이 삶의 과정과 유리하지 않고 학생들이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학교가 학부모의 참여 속에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양자의 이상적인 관계는 학교가 지역 사회의 문화적 중심지이며, 지역 사회는 학습의 무한정한 자원이 되는 것이다. 대안교육의 궁극적인 가치는 다양한 개성의 실현을 통한 자기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고, 교사와 학생, 동급생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즉, 인성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4) 노작 활동: 크게 두 가지 관점에 따라 해석된다. 즉, 좁은 뜻으로는 신체적 활동, 주로 손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공적 활동(手工的活動)을 뜻하며, 넓은 뜻으로는 신체적 활동을 주로 하는 기술상의 일이라든가 자연을 다루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교육의 개선을 기도(企圖)하려는 것이다.

5) 영국에서는 1985년에 '인간규모 교육 운동' 아동이 개체 인간으로서 인정될 만한 규모로 운영되는 학습 체제 --이 시작되었으며, 또 1982년에는 1973년에 출간된 슈마허(E. F. Schumacher)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사상에 바탕을 둔 '작은 학교'(small school)가 설립되어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D. Randle, 1989). 또 독일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기존의 학교와는 전혀 다른 이념적 바탕을 가진,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교육 실험으로서 '자유 대안 학교'(freie Alternativschule) 운동이 시작되었다(정유성, 1996).

권현숙(1999) 대안학교 특징을 전통교육, 근대교육과 비교함으로 설명한다.

<표1> 전통교육, 근대적 교육과 대안교육의 특징비교(권현숙)

구분	전통적 교육	근대적 교육	대안교육
사회적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사회, ■ 공동사회, ■ 봉건사회 (소수 귀족이 지배) ■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함 ■ 사회변화가 비교적 느림 ■ 한정된 필수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사회, 이익사회 (전문가 지배) ■ 2차 집단적 성격 강함 ■ 급속한 사회변화 ■ 지식의 폭발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산업화, 초근대화 ■ 이익사회 속의 공동사회 구현 ■ 2차 집단적 성격을 인정하면서 1차 집단적 공동체 구현 강조 ■ 지식의 전수보다 학습방법 강조
교육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형식적 교육 ■ 비형식적 조직에 의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적 교육 ■ 집단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형식적 교육 지향 ■ 집단 속의 개별화
학교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학교, 교회(종교적) 학교 ■ 소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으로 제도화 ■ 대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 제도화 ■ 소규모 학교 지향 ■ 가정 및 지역사회 교육 강조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전, 모방 ■ 비형식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에 의한 교육 ■ 형식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형식적 통제(평가)를 지향하는 학생의 자율 평가 ■ 문자교육과 체험에 의한 교육 강조
교육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가족성원,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교육전문가,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사회 모든 구성원, 학생, 성인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민5요, 신화, 전통 ■ 개인의 가치관, 태도, 신앙, 예의, 언어예절, 정서표현, 사회성 등의 정의영역 치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양적 확대를 통한 교육기회 확대, 평등화 추고, 시험에 의한 능력별 교육 ■ 학교 교육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교육 받을 수 있는 교육 복지적 차원의 보편화 ■ 제도교육의 틀을 해체, 변형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교육, 원격 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 강조 ■ 개인선택, 적성에 맞는 차별화 교육

2. 음악치료 교육의 이론적 고찰

a. 음악치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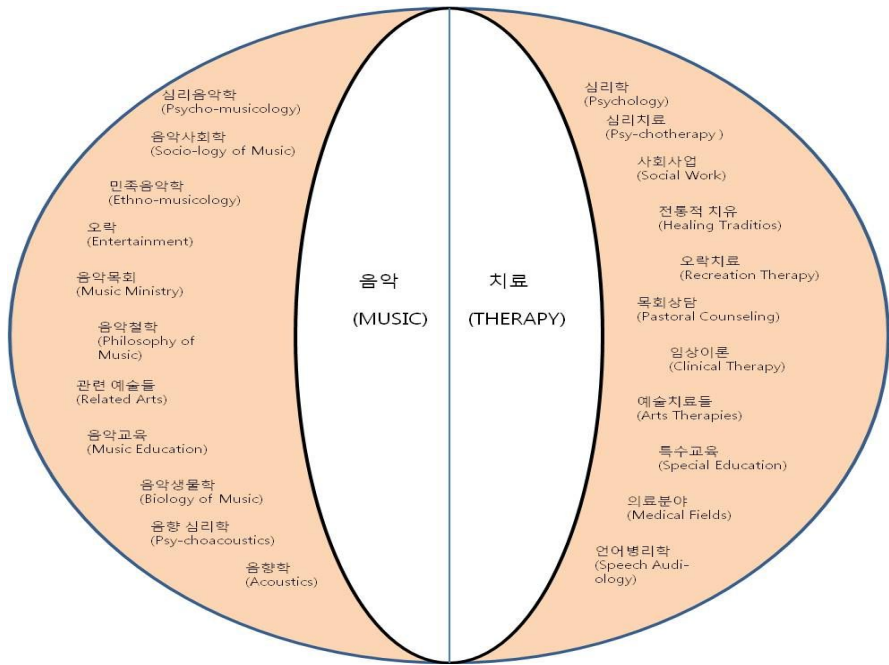
음악치료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미국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음악치료의 정의(1980)는 전국음악치료협회(NAMT)에서 내린 것으로 다음과 같다.

“음악치료는 치료의 목적, 즉 정신과 신체건강을 복원 및 유지시키며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주 인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 정의는 당연히 될 수 없다. 많은 개인치료사들은 치료사 개개인들의 그들 자신의 정의들을 만들어 왔으며, 사실상 다른 모든 외국 음악치료협회에서도 그들 나라의 개념과 임상을 반영하는 정의들을 가지고 있다.(Bruscia 1984a, 1985; Maranto,1993).

음악치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다른 것이 된다. 많은 차이들은 음악치료 그 자체를 정의 내리기 어렵게 한다. 음악치료를 정의 내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지식과 실행의 본질에서 그것은 그 자체로도 정의 내리기 어려운 음악과 치료라는 두 영역이 혼합된 교류물이기 때문이다. 음악과 치료의 혼합이라는 면에서 그것은 예술인 동시에 과학 그리고 교류적 과정이며, 대단히 복잡한 치료방법, 다양한 목적과 방법 그리고 이론적 배경을 가진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차이 또한 음악치료를 정의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분야(discipline)와 직업(profession)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도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음악치료는 아직도 짧은 역사를 가진 분야라는 점에서 여전히 모양을 이뤄 가는 중이다. 음악치료를 정의하는 데 첫 번째 도전은 음악치료가 본질적으로 학제를 초월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음악치료가 분명하게 정의되고 경계(boundaries)가 변하지 않는 독립된 하나의 작업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다. 오히려 음악과 치료라는 두 개의 주요 주제를 둘러싼 많은 직업의 역동적인 조합인 것이다. [그림1]은 음악과 연관된 직업영역이 치료와 연관된 영역과 어떻게 합해지며 혼합되어 음악치료라는 한 형태로 불리는가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Kenneth E. Bruscia,2003제인용).



<그림1> 『음악과 치료에 관련된 학문』

음악치료는 해석이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람이 음악을 사용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치료적이고 발전적인 조치의 스펙트럼(spectrum)이다. 이는, 진행 변화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음악치료는 단순한 형식의 음악으로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학을 무엇보다도 강화, 보강하는 데 있다.

Agrotou : "음악치료란 전이와 역전이를 위한 매체로서 주로 즉흥 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다. 환자, 치료사 혹은 양자에 의해 만들어진 즉흥적 음악은 어느 주어진 순간에 환자-치료사 관계의 상태를 나타낸다. 음악은 치료적 관계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환자의 정서적인 상태를 다루며, 또한 이것이 환자의 환상세계와 과거의 정신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다룬다”(1993,p.184).

Alley : "학교에서 음악치료는 학업, 사회 운동, 혹은 언어 부문에서 특정한 학생의 진보를 달성하기 위해 음악을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특수아동을 위한 음악 치료는 부적절한 행동 혹은 장애를 다루고, 관련된 서비스로서 장애인이 특수교육

을 통하여 혜택을 누리도록 돕는 지원 서비스를 다룬다”(1979,p.118).

영국전문음악치료사협회 : “음악치료는 클라이언트와 치료사 간에 형성된 상호관계에 의해 클라이언트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와 치유되게 하는 치료의 한 형태이다, 치료사는 정서적, 육체적, 정신적 혹은 심리적 장애가 있는 유아와 성인 등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다룬다. 임상환경에서 음악을 독창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치료사는 클라이언트의 병적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치료적 목적으로 인도하는 상호작용, 음악적 경험과 활동을 확립한다(“A Career in MUSIC Therapy” 제하의 협회지).

Bruscia : “음악치료는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의 잠재력을 증진 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찾는 것으로, 치료사와 클라이언트가 주요한 역할 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음악적 경험의 교류적 과정이다.”(1984b).

“음악치료는 음악적 경험이 클라이언트의 건강을 개선, 유지 혹은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람과 사람 간의 대인 관계 과정이다.”(1986,p. 1).

“음악치료는 치료사가 변화의 역동적인 힘으로서 음악적 경험과 관계를 통해 발달시켜 클라이언트의 건강을 개선시키고 유지하며 복원하도록 돕는 목적 지향적 과정이다.”(1987a,p. 7).

“음악치료는 치료사가 음악과 음악의 모든 국면-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미적, 그리고 영적-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건강을 개선하고, 복원하거나 유지토록 돕는 교류적 과정이다.”(191,p. 5).

전국음악치료협회 : 음악치료는 치료의 목적, 즉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 및 유지시키며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치료의 환경 속에서 치료대상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치료사가 음악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치료를 받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과 주변의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하여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치료를 맡은 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전문 음악치료사는 자신의 치료 계획을 세우거나 특정한 음악적 활동을 시행하기 전에 치료팀이 환자의 문제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치료의 목적을 설정하는 데 먼저 참여하게 된다. 또한, 시행되는 치료 과정이 효율적인지를 알기 위해 정기적인 평가를 행하게 된다(음악치료 경력 제하의 홍보물에서, p. 1980).

“음악치료는 정신건강, 신체건강, 재활, 갱생 혹은 특수교육의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음악을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개인이 그들의 최대

기능 수준에 도달하고 유지하게끔 돕는 것이다.”(NAMT 임상적 시행의 표준, 1983).⁶⁾

이렇듯 음악치료는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한 내용으로 정의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음악치료의 개념 또한 음악이 신체적, 정신적 치료의 목적만이 아닌 교육의 색채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음악의 요소들을 하나의 지각, 인지적 자극체로 활용하여 최대한의 인지적 활동으로 유도함으로써 치료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데, 음악 치료 수업을 통해 심리적 과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기의 학생들(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진 전반적인 특징인 동기부여가 어려운 점과 무기력함을 음악치료 수업을 통해 음악적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음악치료를 도구로 활용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 청소년 음악치료 교육의 목적 및 기법

청소년기는 ‘성장급등’ ‘성장폭발’이라고 표현할 만큼 성장 속도가 빠르고, 더불어 인지적 발달도 정점을 이룬다. 그러나 이 시기의 학생들은 변화무쌍한 발달에 대처할만한 충분한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항상 혼란 속에서 끊임 없이 긴장하고 갈등하게 되며 많은 심리적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청소년기의 정서적 불안은 감정의 양면성에서 잘 드러나는데, 감정의 양면성은 심신의 불균형을 조장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일관성이 없고, 다소 무책임한 행동 양상을 보인다.

최병철(1999)은 음악치료의 목표로 자긍심의 회복을 들었는데 무기력함과 공허함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음악치료 그룹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그의 음악적 배경이나 사회적인 배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활동에 참여 그룹 활동에서 인식되는 자기 성찰의 과정과 경험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

6) Kenneth E. Bruscia 저 음악치료. 서울: 학지사

이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뢰나 깊은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볼 때 치료적 목적으로 필수적인 음악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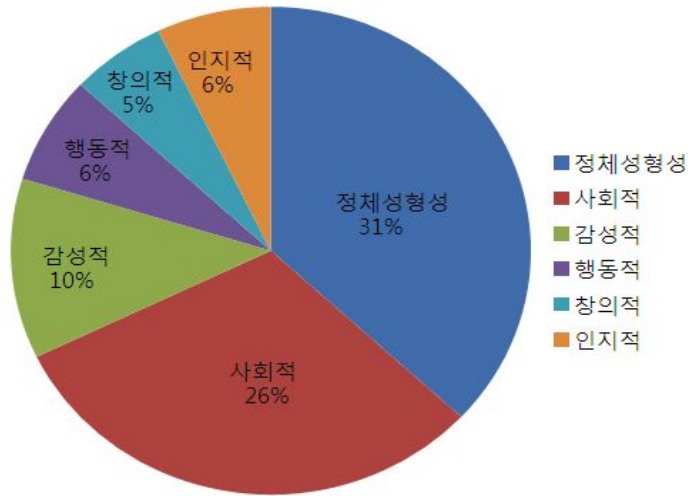
음악을 심리 치료적 도구로 활용하는 데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론은 Wheeler(1983)가 제안한 세 단계 심리 치료적 적용이다.

첫째, 지지적 활동 중심으로 음악이 제공되는 단계이며, 둘째는 통찰력을 통한 재교육에 목표를 두고 접근하는 단계, 그 마지막으로 성격의 재구성에 목표를 둔 단계이다.

첫 단계는 치료사에 의해 구조화된 음악적 프로세스 안에서 충동적이거나 부적절한 성향들을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활동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하게 하는 수준이다. 특징적으로 이 수준에서의 변화는 자기 통제와 절제에 의미를 둔다. 이는 불필요한 언어적 또는 운동적 표현들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의 음악적 접근은 조금 더 심층적 접근으로 위에서 언급된 행동 변화의 목적과는 달리 개인의 감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들을 탐색하면서 본인의 내면세계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깊이 있는 감정 작업을 계속하며, 본인이 경험하는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누구와 연관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현재의 감정보다 한 단계 깊이 과거의 경험을 다루게 된다. 즉, 현재 이러한 감정을 갖기까지 성장 과정에서의 특정 사건이나, 대상을 파악하고 본인의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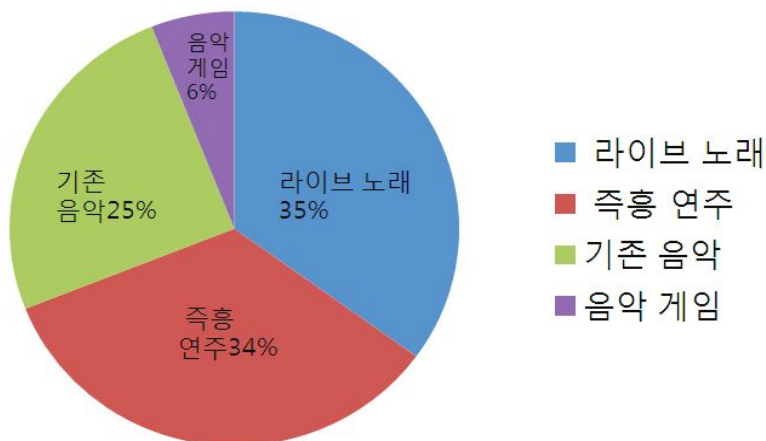
<그림2> 청소년 음악치료의 목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에 다룬 선행 논문을 보면, 음악치료 작업이 중점을 두고 있는 두 가지 주안점은 대인관계(사회성)와 개인 내부(정체성 형성)의 문제이다(최미환,2003).

정체성 형성의 하위 개념에 포함되는 목적들은 ‘자아self’ 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학자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체성 형성에 대한 뉘앙스를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표현self-expression, 자기개념self-concept, 자아 존중감self-esteem, 자기 인식self-awareness, 자신감self-confidence, 자기이해self-knowledge, 자기 조절self regulation, 그리고 자의식sense of self 등이 있다.

청소년 음악치료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 음악치료 방법일지라도 클라이언트의 능력과 흥미, 치료사의 접근방향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치료에 사용된 음악적 자원의 종류를 바탕으로 주요한 네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최미환,2003).

- 음악 게임
- 라이브 노래- 선곡, 노래, 연주, 작곡 포함
- 즉흥연주- 악기와 목소리 포함
- 기존 녹음된 음악- 음악 감상, 음악에 대한 토의, 긴장 이완



<그림3> 청소년 음악치료 방법의 범위

즉흥연주, 악기연주활동, 음악 감상과 토론, Songwriting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공격성, 긴장수준, 열등감 등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정서와 낮은 자존감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음악치료에서 그룹 심리치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치료의 즉흥연주이다. 이 방법은 음악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음악 형태와 요소들을 사용하여 악기를 통해 연주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음악 만들기를 통해 중요한 치료상의 문제점과 그와 관련된 비음악적 생각 및 감정을 경험하고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William B. Davis 외, 2002).

Ostwald(1968)는 즉흥적인 음악의 특별함은 동시적인 상징과 직접적인 행동임을 나타내고, 이 특별함은 참여하는 느낌의 인식 없이 감정적인 에너지의 신체적인 해소를 허락하기에 강한 감정의 표현에 정신적인 자유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상황에 대처하게 하고 무기력한 감정을 해결하고 자기표현을 증진함으로써 면역성의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정서적 건강뿐 아니라 신체적 안녕감(wellbeing)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Rob, 1966 재인용).

또한, 악기연주를 통한 성공적인 경험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며, 이러한 감정들은 연속적으로 만족감과 자기존중감의 증가를 가져온다(Gaston, 1968).

Goldberg(1989)는 음악이 정서적인 표현, 상호관계, 내관 그리고 그룹 구성원들 사이를 지지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악기 연주활동 그룹에서 각자의 활동이 어우러짐으로 진정한 공감의 발달과 그룹력을 고무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Sears(1968)도 음악이 사회적 행동이라는 전제로 사람들이 공통된 활동을 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으며, 자신의 상호작용 수준을 선택하도록 허용한다고 하였다(지은미, 2001).

즉흥연주(Improvisation)란 이미 작곡된 악보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하는 동안 즉흥적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또한, 치료를 목적으로 음악과 그 요소를 음성과 악기로 자발적이고도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흥 연주를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 모델은 철학과 심리학적 이론에 따라 기본 전제와 특징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즉흥 연주는 수동적인 활동이 아닌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이다. 이 접근법은 음악을 단순히 듣는 것보다는 만드는 데에 더 중점을 둔다. 클라이언트의

능동적인 참여와 반응을 통해 이루어지는 작업을 “music”과 “making”을 합성하여 “음악 만들기(Musicing)”라고도 부른다(Eliot,1995).

둘째, 이 접근법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치료 내에서 부분적인 역할을 갖기보다는 즉흥 연주 경험 자체가 치료인 “music as therapy” 수준의 음악적 경험을 강조한다. “치료로서의 음악적 경험(Music as therapy)”에서는 음악이 자극제가 되고 또한 클라이언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음악적으로 가능하게 해 주고, 그 과정에서 음악적 행동이 강화되는 현상을 중심으로 한다.

셋째, 즉흥 연주 동안 클라이언트 음악을 통한 자신의 감정과의 접촉(contact)을 경험하며, 언어 대신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음악을 경험한다. 여기에서 치료사는 클라이언트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내면적 갈등이 어떻게 음악적으로 표현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즉흥 연주는 개별 치료 및 그룹 치료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개별 치료는 치료사나 음악에 관계를 맺지 못하고 표현적 대인 기술(interpersonal skills)이 부족한 클라이언트에게 권유되는 반면, 집단 치료는 그룹의 역동성이나 타인과의 상호 교류가 있어야 하는 대상에게 적용된다(정현주,2005).

그렇다면 음악 감상을 통한 치료적 측면은 무엇이 있을까? 음악은 인간의 일상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음악적 행동은 다양한 치료적 원리와 이론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음악을 선곡하는 행동에 이어 감상하는 동안의 감정의 긍정적 변화, 심미적인 경험 등은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내적인 욕구에 의한 것이며 이렇게 음악을 통해 채워지는 충족감과 만족감은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음악 감상은 인간의 보편적인 음악적 행동(musical behavior)이며 삶의 의미 있는 부분을 차지한다. 음악 감상은 음악치료사뿐만 아니라 음악 심리학자들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로서 계속 연구 되고 있다.

인간이 음악을 감상하면서 경험하는 각성(arousal)과 심미적 반응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과 해석은 크게 관련주의적 시각과 표현주의적 시각으로 나뉠 수 있다. 관련주의적 시각에서는 음악의 심미적인 경험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음악 외적인 요소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각성은 음악 요소적 특성들이 음향적으로 묘사하는 특정한 심상이나 이미지,

혹은 감상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악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 등에 따른 감정적 반응 때문에 일어난다고 한다. 이러한 시간은 특히 음악이 하나의 청각적 자극체로서의 의미와 이에 따른 감정적 정서적 반응에 초점을 둔다(Unkefer,1990).

음악 감상은 아동들의 느낌과 정서, 갈등과 문제를 들추어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Jacox(1977)에 따르면 음악 감상을 포함한 음악의 사용은 인지적 전략, 기분 전환의 한 유형으로 부정적인 양상에서 긍정적인 자극으로 재초점화 하는 것에 의해 수반되는 불안과 고통의 지각을 약화시킨다고 했으며, Walter(1996)은 친숙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스트레스 감소와 걱정과 불안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또한, Gabriel과 Crickmore(1977) 등의 여러 학자들은 감정은 음악에 대한 반응을 묘사한 것으로 사용되기 위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음악 자체가 감정을 일으키고, Hinrich(1995)는 정서 상태 전환의 한 방법으로 음악을 들으며 치료를 시작한 후 신체적 느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관심을 두게 하고 그런 태도를 분석, 청소년 스스로 그 잘못에 관한 판단을 지각하게 한다고 하였다(지은미, 2001).

음악 감상은 음악치료 활동 중에서 가장 수동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문화와 개인의 기질에 따라 음악의 접근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음악 감상은 다른 적극적인 음악 활동 이전에 필요한 도입의 단계로 볼 수 있다. 음악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 반응에 관한 연구는 신체적 항상성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중심으로 있는데, 심리적 변화를 가져오는 “안정적인 음악”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정현주,2002).

<표 2> 안정적인 음악의 요소적 특성

음악적요소	치료적 특성
멜로디/선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율의 도약이 적고 부드러우며, 순차진행 • 조성: 라장조/단조(D Major/minor) → 사장조/단조(G Major/minor)로 된 멜로디 • 선율이 대부분이다.
리듬/템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자 하위분할이 규칙적 • 강박에 강세(Accent)나 당김음(Syncopation)이 나열
화음/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음의 전개가 전형적으로 케이덴스(Cadence)중심 • 으뜸화음(I도)에서 시작→으뜸화음(I도)로 마치는 전개
조성/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조와 단조로 전형적인 구성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멜로디 소절이 같거나 변주된 형태로 다시 제시 →론도형식으로 형성
음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색의 조화가 명확 • 현악, 관악, 타악기등의 조화가 균형적 • 대체적으로 음색이 투명한 가벼운 텍스트로 구성

노래 만들기(Song writing)는 청소년 그룹의 응집력과 자신의 표현력 향상, 자아 개념 향상, 그리고 자신과 동료의 감정적 필요성을 느끼게 하며(Edgerton, 1990)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회복을 돕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Robb, 1996).

Ficken(1976)에 따르면, 노래 만들기 (Song writing)활동 자체가 감정을 확인하는 능력을 증가시키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인식을 증가시켜 재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강화인자를 통해 직접적 행동 수정과 상호 관계성, 환경의 재적응, 목적 수정, 창조적인 잠재력, 자기 성장의 촉진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치료가 청소년의 심리적 변화를 도모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바로 개개인의 내재된 잠재력을 불러일으켜 청소년이 성장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음악은 언어와는 달리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지 않으며, 안정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이는 바로 유용한 행동학습으로 이어진다.

특히 음악 활동은 자신감과 자기 존중감, 혹은 무기력하거나 사회성이 모자란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성취감, 협동심, 즐거움을 주게 되고, 또래와의 음악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서 또래 관계 증진에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음악치료 기법 중에서 환경상의 문제(시골학교)로 악기 구비가 힘든 점을 고려하여 특별한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노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한 음악치료 교육 방안을 모색해보고, 그 실효성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c. 음악치료 사례

성악 즉흥 심리치료 사례

1) 사례1-수지

처음 수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자신과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항상 남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과의 타협에서 수지는 항상 남을 위주로 양보하게 된다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이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경험하고 이를 억압 하는 것이었다. 수지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더 당당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나의 남성적 면모를 강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주로 다른 사람이 하자라는 대로 따라가는 쪽이거든요. 갈등을 피하려고...”.

집안에서 수지의 존재는 항상 긴장을 동반했다. 가족구성원 중에서도 수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이 역할은 수지의 존재를 특별하게 만들었고 수지는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배려하는 입장이었다. “나는 착한 아이였죠. 말 잘 듣고, 엄마와 아빠의 관계도 개선해 주고, 또 엄마와 오빠와의 관계도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수지는 친구 관계나 회사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지속해서 그런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수지는 모두 자신을 이용하려고만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그녀는 모두를 즐겁고 편안하게만 해 주는 데 이력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제는 분노를 쌓아 두기보다는 표현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러한 역할이 즐겁기보다는,

계속 내재된 분노로 쌓이게 되며, 이는 삶에 대한 태도와 정서가 불만과 짜증 때문에 건강하지 않게 또는 부적절하게 분출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래 작업은 먼저 그녀로 하여금 감정표출을 시도하도록 유도하였다. 노래 안에서는 어떠한 감정표현도 가능하므로 그녀가 자신으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하지만 자신을 허용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으며, 특히 목소리를 이용한 극히 개인적인 표현은 도전적으로 경험된다고 하였다. 초기 세션에서 수지는 자연적인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였으며 즉흥적으로 노래하는 것조차 힘들어하였다.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였으며 감미롭지 못한 소리를 냄으로써 치료사가 거부반응을 보일까 봐 의식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의식들 때문에 항상 본인의 느낌과 감정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장해 왔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빠의 부정적인 부성 콤플렉스를 나에게 전이시켰다. 서서히, 우리는 그녀의 분노에 대해서 작업하였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외면 시 되는 것에 대한 불안을 다뤘다. 그녀는 다시는 치료사를 자신의 아버지와 연관 짓지 않았으며, 긍정적인 모성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노래 작업이 계속해서 전개되면서 수지는 “나 자신을 들을 수 있고, 나 자신이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내 몸이 울리고 있음을 지각할 수 있고, 얼마든지 크게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내가 만드는 소리가 예쁜지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신경 쓰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체가 힘이 되어요.”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안정감을 제공하였으며, 그녀로 하여금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였다. 이는 계속 새롭게 경험하는 소리와 노래를 이용한 치료 작업에 더 몰두할 수 있게 해주었다(정현주,2006).

Ⅲ. 음악치료교육의 적용(노래 심리치료)

노래는 음악치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노래는 언어와 음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언어는 인지적이지만 음악은 감정적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노래는 치료에 참여한 사람의 인지와 감정을 동시에 자극하며, 개인의 생각과 느낌에 대한 표현을 보다 풍부하게 해 준다. 그러므로 노래는 좀 더 쉽게 감정과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 노래는 인간의 목소리를 주 매개체로 한다. 그리고 이 매개체는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음악치

료에서는 목소리 사용을 통한 정체성 확립, 그리고 정체성의 표현에 치료적 목표를 둔다.

노래를 이용한 치료적 접근은 치료 목적에 따라 음악과 언어 중 어디에 더 큰 비중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노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노래 자료(대중가요)를 이용한 음악 심리 치료의 한 방법으로 가사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작사하거나 개사를 통해 만들어진 곡을 직접 노래하는 활동이 있다.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랫말에 대한 분석이며, 가사 속의 상징, 운유, 비유 등을 통해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회피하였던 감정과 생각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이다. 가사가 있는 노래를 통해 외부 세계에서의 개인의 경험과 그로 말미암은 감정들을 음악치료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노래 심리 치료의 치료적 개념은 음악과 언어를 통해 구체적인 자기표현을 가능케 하며 자기의 현재 상황과 문제들을 노래 안에서 동일시하게 하고, 자신을 어떻게 왜곡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노래 심리 치료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내면적 문제를 가장 잘 표현한 노래를 선곡하고 들이면서 클라이언트의 반응이나 통찰을 유도하는 도구로 노래를 사용해야 한다.

노래 선곡은 치료 과정(treatment contour)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단계에서는 치료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즉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신뢰감 형성에 중점을 두고, 가사나 멜로디가 단순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곡들로 선택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인의 정서나 심리적 이슈들을 찾아가고 확인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다양한 소재의 곡들을 선택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확인된 문제들을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래들을 선택하여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들을 처리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 통찰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 가도록 돕는다(정현주,2005).

노래 심리 치료는 <표3>과 같이 다양한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표 3> 노래 심리치료의 활용 방안

작업 형태	방법
노래 대화하기(Song Communication)	준비된 노래를 듣고 그 노래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치료사와 또는 집단 구성원과 함께 나누는 방법
노래 부르기(Singing)	목소리를 통하여 음색, 선율, 가사 등을 직접 표현하는 방법
노래 회상하기(Song Reminiscence)	노래(원곡)를 이용하여 과거 회상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
노래 즉흥 연주(Song Improvisation)	즉흥적으로 노래를 만들어 연주하는 방법
노래 그림 그리기(Song Drawing)	노래를 듣고 연상되어지는 장면이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
노래 만들기(Song Writing)	노래를 만드는 작업으로 기존의 곡에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직접 가사를 바꾸거나 노래를 만드는 방법

노래 심리 치료는 대상에 따라 접근이 달라져야 하며, 치료사는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 들은 성취되는 목적이 다른데, 노래 부르기는 감정과 정서 경험이 강조되는 반면, 노래 만들기는 클라이언트의 이슈를 가사로 언어화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노래 심리 치료에서 언급되는 몇 가지 심리 치료적 기능은 다음 <표4>와 같다.

<표 4> 노래 심리치료적 기능

종 류	심리치료적 기능
문제의 규명	노래를 통해 자신의 내면적 문제와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감정 이입	노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감정을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다.
투사	노래의 가사에서 다루어진 문제점이나 감정과 동일시한다.
자기 정화	특정 이슈에 대한 감정을 표출시킬 수 있다.
설득	가사를 통해 현재 대면하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해결 방법을 얻는다.
보편화	가사를 통해 본인의 문제가 타인들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의면화	무의식적으로 노래에 대한 긍정적인 혹은 감정적인 반응과 함께 내재된 갈등이나 문제를 규명할 기회가 된다.
자기표현	본인의 문제를 노래를 통해 전달하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노래 부르기의 활동은 인간에게 매우 친숙한 음악 활동으로 거의 모든 연령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담당할 수 있는 대중화된 음악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인류와 함께 오랫동안 존재해 왔으며, 한 사회의 문화와 시대성을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전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 본질의 다양한 감정들을 담고 있는 좋은 자료다. 노래심리치료는 다양한 형태의 노래를 치료의 주 자원으로 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음악심리치료의 한 접근이다.

치료대상자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노래들을 통해 자신의 과거 및 현재의 내적인 갈등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면서 현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심적 고통의 뿌리를 찾아 다스리고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과정중심의 치료 방법이다. 이는 또한 자아의 정신 건강을 위한 “개성화 과정(individuation process)’이라고 할 수 있다. 노래는 이러한 과정에서 대상자가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또한, 지속해서 겪게 되는 감정을 반영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노래가 지닌 또 다른 특성은 노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매우 다양한 수준과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노래를 인간의 감정과 정서만을 관련지어 노래가 가진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노래는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신체-생리적, 행동적, 정신적, 인지적인 측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현주.2006)

이처럼 노래가 갖는 치료적 기능은 다양하다.

첫째, 노래는 인간의 본질을 반영하고 인간 내면의 다양한 감정들을 여러 차원의 수준과 정도로 전달하고 있어, 대상자가 고통받고 있는 감정의 공명상자(emotional resonating)가 될 수 있다. 언어적으로 호소 또는 표현하기 어려운 차원의 감정을 노래가 반영해 주며, 더 나아가 노래는 대상자의 상태와 문제를 수용해 주고 비위협적으로 외부에 표현해 준다. 즉, 노래는 인간의 감정을 반영하고 표현하며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는 좋은 매개체가 된다.

둘째, 노래는 삶의 다양하고 보편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으므로, 대상자가 삶의 많은 주제들과 접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대상자는 노래에서 등장하는 자신과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재경험해 봄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타인의 처지에서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셋째, 노래는 비위협적으로 대상자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심도 있게 관찰할 수 있도록 편안한 구조를 제공한다. 대상자가 말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지 않아

도, 노래 선곡, 노래를 부를 때의 목소리, 노래 회상, 연상내용, 노래 만들기 주제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무의식에 있는 자신의 감정과 갈등을 드러내게 되고, 이를 통하여 대상자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노래는 개별화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활동으로 융통성 있게 변화되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감상에서 작곡까지 다양하게 작업형태를 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함께 노래 부르기-기존노래의 활용

개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노래를 사용하는 접근법은 몇몇 형태의 언어적 소통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노래는 치료를 위해 인간에게 영감을 주는 것으로서, 개인의 안문과 성장을 촉진하는 토의와 함께 사용된다. 음악은 치료 자체로서가 아니라 치료 '안'에서 사용되므로(Bruscia, 1998a), 치료사는 라이브로 노래 부르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라도 기존의 노래를 더 많이 사용한다. 기존의 노래를 틀어 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연상 작용과 더욱 직접 연결 되어 있고, 치료사들이 연출가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언어적 소통 과정에서 음악치료사의 역량은 특히 중요하며, 음악에 대한 청소년의 대답과 연관된 질문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데니스 그로크 Denise Grocke는 이런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세 단계의 질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노래에 관한 질문, 자신과의 연관성에 관한 질문 그리고 음악에서 묘사된 삶의 면모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Grocke & Wigram, 2006).

2. 나만의 노래 만들기 (Song creation)

음악치료에서 노래를 만든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창의력과 공감의 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노래 만들기 과정이 더 길어질 때에는,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 청소년들과 노래를 만들 수 있고, 만든 노래를 공연할 수도 있다. 작곡에 필요한 독창성의 수준은 개인의 능력이 다르므로 광범위하다.

노래 만들기는 소극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라, 작곡에 대한 진실한 관심과 만든 노래에 대한 충족감이 결합한 음악적이며 치료의 기술이 많이 요구되는 기법이다.

개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노래 만들기를 사용할 때, 우선하여 통찰력과 사색을 고취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것은 노래에 대한 토의뿐만 아니라 가사 활동 안에서도 일어난다. 이런 활동들은 청소년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현재의 삶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생각들이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살피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한다.

본 연구는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한 음악치료 교육 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로, 전남 영광에 있는 대안학교 S 중학교 전교생 120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치료모듈은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육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정현주 교수님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작업한 입증된 음악치료 모듈을 사용하였다.

지적 수준, 집중도를 고려하여 학년별로 2회씩 진행토록 하였으며, 1학년 학생들은 권진원의 “살다보면”, 2~3학년 학생들은 인순이의 “거위의 꿈” 모듈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에 사용 한 치료 모듈은 다음과 같다.

제목		노래 패러디 (song parody)
적용대상	영광 S 중 1학년	
활동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료사와 내담자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 •자기표현 향상 및 동기 유발 <p>내담자가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할 것. 이 노래는 살다보면 누구나 겪게 되고, 삶 속에서 자주 느끼며 고민해보는 주제이지 만 가사나, 곡의 멜로디와 흐름이 무겁지 않고 누구나 경험하는 일상이라는 것에 공감을 형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직접 노래를 불러보는 경험이 자아를 느끼고 탐색 할 수 있는 동기유발이 될 수 있다. 경쾌하고 단순한 리듬과 반복되는 멜로디가 친숙하게 다가오고,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으로 내담자가 덜 위협적인 환경 안에서 참여 할 수 있다.</p>
준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아노(기타), CD,CDP,악보 •곡명 : 살다보면 (권진원)
진행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CD를 통해 준비한 노래를 먼저 들어본다. ②듣고 난 후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알고 있는 곡인지, 느낌이 어떤지, 가수에 대해서 등..) ③나눠준 가사를 보고 들었을 때와 보지 않고 들었을 때의 느낌을 이야기 한다. ④준비된 반주에 맞춰 직접 노래를 배우면서 불러본다.(2-3번 반복 한다.) ⑤노래가 익숙해지면 노래 가사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살다보면 어떤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지, 외로운 날이 언제이며, 무엇이 날 외롭게 만드는지, 힘들고 피로울 때 어떻게 벗어나고 싶은지 등..) ⑥악보를 나눠주고 활동지에 자신의 이야기로 빈칸을 채우도록 지도한다. ⑦조별로 완성된 가사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⑧지도자는 대화가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반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⑧내용을 정리하고, 조별 으뜸이를 선정하여, 바뀐 가사로 함께 노래한다. ⑨오늘 한 활동의 느낌을 서로 이야기 하고, 수업을 마친다.

<치료모듈1>

치료 후기

음악치료 수업이라는 새로운 활동을 한 자체로 아이들에게 큰 의미가 된 것 같았고, 비교적 쉬운 멜로디라 금방 따라 불렀다. 설문지를 통해 실제로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나 친구들과의 원만한 또래 관계 형성이 힘들다거나 하는 구체적 사항들이 들어나 전반적으로 청소년기 학생들이 겪는 심적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 또한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하였다(“힘든 날엔 축구만 하고 놀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1학년 K군, L양).

살다보면 (가 사)

살다보면 괜시리 외로운날 너무도 많아
나도 한번 꿈같은 사랑 해봤으면 좋겠네
살다보면 하루하루 힘들일이 너무도 많아
가끔 어디 혼자서 훌쩍 떠났으면 좋겠네
수많은 근심걱정 멀리 던져버리고 언제나
자유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란 꿈으로 살지만
오늘도 맘껏 행복했으면 좋겠네

<활동지>

살다보면

학년 반
이름:

살다보면 괜시리 ()너무도 많아

나도 한번 꿈같은 ()해봤으면 좋겠네

살다보면 하루하루 () 너무도 많아

가끔 어디 혼자서 () 먼 좋겠네

수많은 근심걱정 멀리 던져버리고 언제나

자유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란 꿈으로 살지만

오늘도 () 먼 좋겠네

3. 살다 보면

권진원 노래

살 다 보 면 권 시 려 의 보 운 님 니 무 도 많 아
허 무 이 무 힘 돈 없 어 니 무 도 많 아

나 드 란 번 공 갈 온 시 랑 이 봤 으 면 좋 겠 네
기 공 어 디 온 자 시 료 칩 떠 났 으 면 좋 겠 네

1^{Bb} 살 다 보 면 수 많 은 근 심 걱 청
2^{Bb}

Cm F7 Bb Ebm Dm Gm7
멀 리 던 저 버 러 고 언 제 니 자 유 롭 게 어 림 답

Cm F7sus4 F7
거 그 령 거 우 우

Bb Cm7 F7 Bb
너 앞 은 오 늘 보 디 니 으 려 란 꿈 으 로 살 지 만

Gm Cm7 Ebm F7 Bb
오 늘 도 많 겠 명 복 으 면 그 랐 으 면 좋 겠 네 살 다 보 면

Ebm F7 Bb Ebm F7 Bb
그 랐 으 면 좋 겠 네 그 랐 으 면 좋 겠 네

D.S. al Coda

<악보1> 살다보면 - 권진원

제목		노래 패러디 (song parody)
적용대상	영광 S중 2,3학년	
활동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의 자아와 환경적 상황의 특성 진단 • 내담자의 정서 / 내면적 이슈 탐색 <p>꿈을 소재로 한 노래로, 내담자의 환경과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노래 안에 드러내어 내담자 자아상의 위치와 상태, 그리고, 환경적 상황과 특성을 진단하고 내면적 이슈들을 탐색하는데 이슈를 둔다. 느린 템포와 부드러운 선율, 멜로디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분위기와 트럼펫의 solo부분의 간주는 외롭지만 끝까지 싸워 꿈을 이루어 가는 의지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내담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다.</p>
준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아노(기타), CD,CDP,악보 •곡명 : 거위의 꿈(카니발)
진행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CD를 통해 준비한 노래를 먼저 들어본다. ②듣고 난 후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알고 있는 곡인지, 느낌이 어떤지, 가수에 대해서 등...) ③나눠준 가사를 보고 들었을 때 보지 않고 들었을 때의 느낌을 이야기 한다. ④준비된 반주에 맞춰 직접 노래를 배우면서 불러본다.(2-3번 반복 한다.) ⑤노래가 익숙해지면 노래 가사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작사가가 의도하는 꿈의 의미, 왜 거위의 꿈이라고 했는지 등...) ⑥악보를 나눠주고 활동지에 자신의 이야기로 빈칸을 채우도록 지도한다. ⑦조별로 완성된 가사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지도자는 대화가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반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⑧내용을 정리하고, 조별 으뜸이를 선정하여, 바뀐 가사로 함께 노래한다. ⑨오늘 한 활동의 느낌을 서로 이야기 하고, 수업을 마친다.

〈치료모듈2〉

치료 후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K-POP 스타에서 박지민이라는 가수가 불러 익히 알고 있는 멜로디라 학생들의 호응도가 좋았다. 1학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음악치료 수업을 통해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가졌다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번 치료수업을 통해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봐야겠다.”-2학년 A모양)

거위의 꿈(가사)

난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파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뜻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때도
난 참아야했죠 참을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것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에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활동지>

거위의 꿈

학년 반
이름

난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가 뜻모 를 비웃음 내 등 뒤에 ()도
난 ()했죠 ()수 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이라고
세상은 ()처럼 이미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 서있는 운명이란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에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4. 거위의 꿈

카니발

C Em/B Edim7/B \flat A

난 니 꿈 어 있 었 조 머 려 지 고 쫓 게 남 부 리 어 도

Dm Dm(maj7) Dm7 Bm7(ϕ 5) Am Am(maj7)

내 기 숨 길 속 히 보 물 과 같 어

C/D D Gsus4 C

간 직 었 던 꿈 록 때 큰 누 군 가 기

Em/B Edim7/B \flat A Dm Dm(maj7) Dm7

뜻 모 를 비 웃 음 내 동 뒤 에 돌 릴 때 도

Bm7(ϕ 5) E Am Am(maj7) C/D D

난 잠 이 어 었 조 잠 을 수 없 었 조 그 날 을 위

Gsus4 G C C7 Fmaj7

해 늘 걱 정 히 듯 말 하 조 헛

B \flat Cmaj7 E/B E

된 꿈 은 득 어 리 고 세 상 은 끝 이 정 히 진 착

<악보2-①> 거위의 꿈- 카니발

Am Am(maj7) Am7 C/D D G

지 름 어 미 돌 이 질 수 없 는 현 실 어 리 고 그 리 오

♩♩ C Em/B Edim/B♭ A

난 난 꿈 어 었 어 오 그 꿈 을 만 어 오 나 를 지
니 그 벽 을 넘 고 서 지 미 날 을 놀 이 날 을 수

D F Fm C/E Am

겨 빠 오 지 지 갑 게 서 있 는 문 명 이란 벽 앞 에 당
없 어 오 이 무 거 운 세 상 도 니 를

D D#4 F/G D(add2)/E Am

당 히 미 주 질 수 없 어 오 언 젠 기 뉘 을 손 엮 으 니

Dm -To Coda G C

살 외 곱 예 서 니 웃 을 그 낄 을 함 께 히 오

D.S. j
D.S.S.S.

coda G F/G F/G G C

웃 을 그 낄 을 함 께 히 오

<악보2-②> 거위의 꿈 - 카니발

영광 S중학교-학생 심리 상태 조사 현황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구분		2차검사 실시학생수	정상군 학생수		주의군 학생수	
학년	성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1학년	남	3	1	33.33%	2	66.67%
	여	6	2	33.33%	4	66.67%
	계	9	3	33.33%	6	66.67%
2학년	남	7	3	42.86%	4	57.14%
	여	6	1	16.67%	5	83.33%
	계	13	4	30.77%	9	69.23%
3학년	남	6	3	50.00%	3	50.00%
	여	6	0	0.00%	6	100.00%
	계	12	3	25.00%	9	75.00%

자료1. 정상군 학생 수 & 위험군 학생 수

구분		Beck 자살생각 척도			BAI		
학년	성별	대상 학생수	주의군 학생수	비율	대상 학생수	주의군 학생수	비율
1학년	남	3	0	0.00%	3	2	66.67%
	여	6	0	0.00%	6	1	16.67%
	계	9	0	0.00%	9	3	33.33%
2학년	남	7	0	0.00%	7	1	14.29%
	여	6	2	33.33%	6	0	0.00%
	계	13	2	15.38%	13	1	7.69%
3학년	남	6	1	16.67%	6	0	0.00%
	여	6	4	66.67%	6	4	66.67%
	계	12	5	41.67%	12	4	33.33%

자료2. 자살척도&Beck 불안척도 (Beck Anxiety Scale ; BAI, Beck 등, 1988)

구분		반항 품행문제			자아존중감 척도(SES)		
학년	성별	대상 학생수	주의군 학생수	비율	대상 학생수	주의군 학생수	비율
1학년	남	3	0	0.00%	0	0	0.00%
	여	6	3	50.00%	0	0	0.00%
	계	9	3	33.33%	0	0	0.00%
2학년	남	7	2	28.57%	0	0	0.00%
	여	6	3	50.00%	0	0	0.00%
	계	13	5	38.46%	0	0	0.00%
3학년	남	6	0	0.00%	0	0	0.00%
	여	6	3	50.00%	0	0	0.00%
	계	12	3	25.00%	0	0	0.00%

자료 3. 반항 품행문제 & 자아 존중감 척도

구분		학교따돌림 척도			역기능 충동성 척도(DIS)		
학년	성별	대상 학생수	주의군 학생수	비율	대상 학생수	주의군 학생수	비율
1학년	남	3	0	0.00%	3	2	66.67%
	여	5	0	0.00%	6	4	66.67%
	계	8	0	0.00%	9	6	66.67%
2학년	남	7	0	0.00%	7	3	42.86%
	여	6	0	0.00%	6	3	50.00%
	계	13	0	0.00%	13	6	46.15%
3학년	남	5	0	0.00%	6	2	33.33%
	여	6	0	0.00%	6	4	66.67%
	계	11	0	0.00%	12	6	50.00%

자료4. 학교 따돌림 척도 & 역기능적 충동성 척도 (Dysfunctional Impulsivity Scale)

IV. 결론

본 연구는 영광에 있는 대안학교인 S중학교 전교생 120명 대상으로 음악치료프로그램이 대안교육의 한 방안으로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졌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는 질적 평가이다.

음악치료 수업은 학년별로 2회씩 진행하였으며, 음악치료 프로그램 수업 후, 연구의 결과와 개별 면담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대안학교 학생들의 자신감 또는 자존감을 증진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대안학교 학생들은 공통으로 동기부여가 힘들고, 무기력한 정서 때문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그로 말미암은 학업 성취도도 떨어진다는 전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 자존감 확립 및 자신감을 증진시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적인 힘을 길러 줄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면담을 통해 학생이 말하길, 자신은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치료 수업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고, 자신의 미래 또한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둘째,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또래 관계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회적으로 왕따 문제로 청소년 자살사건이 빈번한 요즘, 음악치료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의 교류와 수용을 통해 긍정적 에너지를 공유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유도하여 문제 해결이라든지 부정적 사고에서 긍정적 사고로의 전환, 동기화함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면담을 통해 학생이 말하길, 치료 활동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함으로 나와는 다른 성향이 있는 친구였구나! 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친구를 수용하는 마음도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

설문지와 면담을 통해 나타난 음악치료 수업의 효과는 대안교육의 핵심 내용인 ‘인성’이 주가 되는 교육, 즉 사람됨을 중요시하는 교육의 이념에 걸맞게 학생들의 건강한 정서발달에 충분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음악치료프로그램이 대안교육의 한 방안으로서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정서적인 격동기라고 할 만큼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 평소 대안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나였기에, 열린 교육의 의미가 있는 대안교육의 한 방안으로서 음악치료의 효과를 알아보하고자 함이 이 연구의 시발점이었다.

음악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엔 아이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의 유형이 너무 다양하였고, 그 심리적 요인들을 나눠 유형별로 다른 프로그램(모듈)을 가지고 수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은 치료 목적의 음악이 아닌 아이들과 음악 그 자체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음악 활동 안에서의 자아 성찰의 시간과 또래 관계 증진에 있었다.

실제로 아이들은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설문지를 통한 내용에서도 뚜렷한 효과는 보이지 않았으나 아이들에게 ‘꿈’이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왕따 문제로 청소년 자살이 빈번한 요즘, 음악치료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자신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음악치료가 또래 관계 증진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대안교육의 한 방안으로서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Alice-Ann Darrow, 김영신(2006). 음악치료 접근법 .학지사 .
- Bruscia Kenneth E.저 최병철, 김진환.(2003) 음악치료. 서울: 학지사
교육부, 교육 50년사 서울.
- Felicity Baker, Tony Wigram, 최미환(2008). 치료적 노래 만들기. 학지사 .
- Forinash Michele, 정현주외(2012). 음악치료 슈퍼비전, 학지사.
- MaFerran Katrina 저 (2003) 음악치료. 서울: 학지사 부록참조 .
- MaFerran Katrina, 최미환, 홍인실, 장은아 (2012). 청소년 음악치료: 임상 및 교육을 위한 방법.
(사)희망예술기지(KMTACA 출판부).
- 박상희 (2010) 대안학교 음악교육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석사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병환·김영순 공저, (2008) 대안교육 실천과 모색 , 학지사.
- 이종태(2000), 대안교육의 학교의 경직성을 벗어날 수 있는가?
- 이종태·이명준, 새학교 구상(1996) : 좋은 학교의 조건과 그 구현방안 탐색, 한국교육 개발
원 연구보고.
- 정현주(2002), 『청소년 우울증과 정서 장애를 위한 음악치료 효과성 입증과 프로그램 개
발』, 대한음악치료학회.
- 정현주 외 공저(2006).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서울:학지사.
- 최병철(2004), 음악치료학, 학지사.
- 한창진 (1998)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 教育行政專攻 학위논문(석사).